

노동 현안 점검 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

- 전국 권역별 “노사교섭 지원팀” 구성(지방노동위원회 협업), 하반기 임단협 및 원·하청 교섭 총력 지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여름철 폭염대비 안전대책 등 논의
- 중동전쟁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용위기 징후 포착 및 선제대응에 만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4.(목) 15시, 장·차관·본부장 및 소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김영훈 장관은 하반기 임단협 및 원·하청 교섭 지원방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재발 방지 및 폭염 대비 안전 대책, 중동전쟁에 따른 고용위기 예방을 위한 대응 등 현안을 점검하고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없이 대화로 임금 협약을 타결하였으나, 일부 대기업에서 성과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준법투쟁을 실시·예고하는 등 올해 하반기 노사 교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8개 청·대표지청에 “가칭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지방노동위원회 협업),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교섭을 지원하여 상생의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모두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이 최근 성과급 분쟁을 촉발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원·하청 간 ‘대화의 제도화’를 통해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업하여 주요 사업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성과 배분의 문제가 기업의 성장과 원·하청의 발전, 이해관계자 모두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현황 및 조치 사항도 점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반도체, 방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은 선별하여 예방감독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폭염시기 도래 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 신고), 「밀폐 공간 질식사고 예방수칙」(①산소·유해가스 측정, ②충분한 환기, ③호흡보호구 착용)의 현장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 하는 등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그간 방산업체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라며, “각 지방관서는 안전 앞에는 어느 사업장을 불문하고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 아래 최근 생산활동이 급격히 증가한 방산업체·반도체업체 등에 대한 즉각적인 산업 안전과 근로기준 합동 지도·점검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셨듯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각별히 힘써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중동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항공, 플라스틱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자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영범	044-202-7026
		담당자	서기관	장지훈	044-202-7027
			서기관	김진영	044-202-7028
			사무관	차정환	044-202-7032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재훈	044-202-7496
		담당자	서기관	오지영	044-202-762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은경	044-202-8804
		담당자	사무관	오상민	044-202-8805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210
		담당자	서기관	이상혁	044-202-7292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 기관장 여러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를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사회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과연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 귀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 건가,
나의 생명만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가,
한 사람의 생명 그 자체는 또 하나의 우주인데
과연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한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되새기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허망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재해예방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이 있을시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것처럼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장들을 세세히 추려 강력한 감독·점검을 실시해, 유사한 산업재해 발생을 원천 근절하겠습니다.

특히, 그간 방산업체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최근 주문과 생산이 급증한 가운데 발생한 SK 하이닉스의 불소 누출 사고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안전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원칙아래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방산업체와 최근 급격히 생산활동이 증가한 반도체업체 등에 대해서 즉각적인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또한, "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각 지방관서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해주시요.
건설사, 물류·유통업, 조선업, 항공·항만업 등
폭염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이
이행되도록 취약 현장도 밀착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일부 대기업 원청 노조의 성과 보상 요구로
노사 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정 노조법이 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들과
노동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생을 이루기 위한 법입니다.

원청 성과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전에도 있어 왔고,
최근 개별 기업의 실적 향상과
성과 분배를 중시하는 인식 변화 속에서
기업 간의 성과급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노사 간의 갈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에서 과도한 성과 보상 요구가 자칫
노사, 노노, 주주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산업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임단협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관서와 노동위원회가 협업하여
교섭 시작부터 조정, 최종 합의까지
임단협 교섭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 성과 배분의 문제가
기업의 성장과 원·하청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의 발전,
이해관계자 모두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하여
원·하청간 대화를 통해 상생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노사관계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간다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기관장 여러분, 이러한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전쟁이 지속되면서 유가상승, 신규고용 위축 우려 등
고용현장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취약업종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항공, 플라스틱 업종 등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된 지원유형을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버팀이음 예산을 통해 지역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관서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개편된 제도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할구역 지자체 및 기업과 지속 소통하며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